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장 서창대 사무관 구정민	042-481-5182 042-481-5992
 <b>2020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이후</b>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 아는 만큼 보인다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

베트남에 화장품 생산 공장을 세우고 현지 영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베트남 영업을 지재권을 요구하는 곳이 없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 베트남어로 된 출원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믿을 만한 현지 대리인을 찾기도 막막하다. 다른 일로도 바쁜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KOTRA(사장 권평오)는 A씨와 같이 해외 지재권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수출 사업자가 권리 확보와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9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설치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애로사항 해소 지원

책자에는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 8개국 내 IP-DESK에서 지난 2년간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지원한 사례를 수록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전략 ▲상표등록 이후 관리요령 ▲악의적 목적의 현지 상표 무단선점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제품 현지 유통 ▲오픈마켓 입점 후 경고장 수령 ▲중문(中文)상표 별도 제작 등 해외 지적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과 IP-DESK를 통한 대응 지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례집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이나 분쟁 상대방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H사는 선점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고 무효심판에 승소하여 상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에서 현지 바이어가 상의 없이 상표를 선점한 상황에서 P사는 심판·소송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를 신속하게 양도받는 방안을 택했다.

또한 태국에서의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에 대해, E사는 태국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침해기업의 재고 회수 및 상품 디자인 변경을 이끌어냈다. 반면, 독일 전시회에서 디자인 침해제품을 발견한 J사는 현지 디자인권이 없어 직접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럽 디자인 출원가능 기한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대신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분쟁 발생 시 9개 국가에 설치된 IP-DESK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등 특허청의 해외 지적권 보호 지원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례집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내 해외시장뉴스 - 보고서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 사무관 구정민(☎ 042-481-59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TRA자료 20-182

대한민국의 꿈은  
수출입니다  
kotra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IP-DESK가 도와 드립니다**

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